

2 0 1 5  
SUMMER  
V o l . 4 3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사의 따뜻한 이야기

# 원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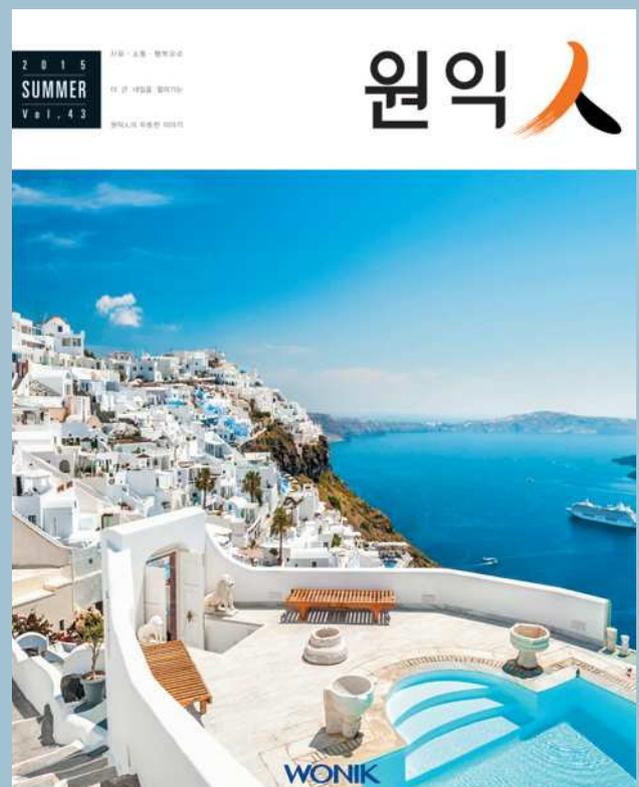


WONIK

自由  
+  
疏通  
+  
幸福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나가는 원익사의 따뜻한 이야기

# COVERSTORY



04 **Cover story**  
자유로운 조직문화  
샤오미

08 **Wonik News**  
원익사 뉴스  
원익가족소식

22 **Cover story**  
CEO Column  
신원종합개발(주) 박영일 대표이사

# CONTENTS

## COVER STORY



##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04 Cover story**

자유로운 조직문화  
샤오미

**08 Wonik News**

원익사 뉴스  
원익가족소식

**22 Cover story**

CEO Column  
신원종합개발(주) 박영일 대표이사

**26 Wonik Business**

(주)원익머트리얼즈  
S-Project

**30 Wonik Business**

(주)원익큐엔씨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

**34 Wonik Business**

(주)원익  
카이스트(KAIST) 인턴십

#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 L I F E S T O R Y



**38 Special Edition**

원익 명사초청 특강  
공존의 법칙

**42 Special Edition**

(주)원익머트리얼즈  
환경안전·기술 / 추광호 상무

**48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BMW

**52 Zoom in**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StimPack)

**5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 농촌일손돕기

**60 Wonik Dream Team**

신원종합개발(주)  
사업관리팀

**64 Musical**

뮤지컬 '인 더 하이츠' (In The Height)

**66 Exhibition**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68 Health**

면역력

**70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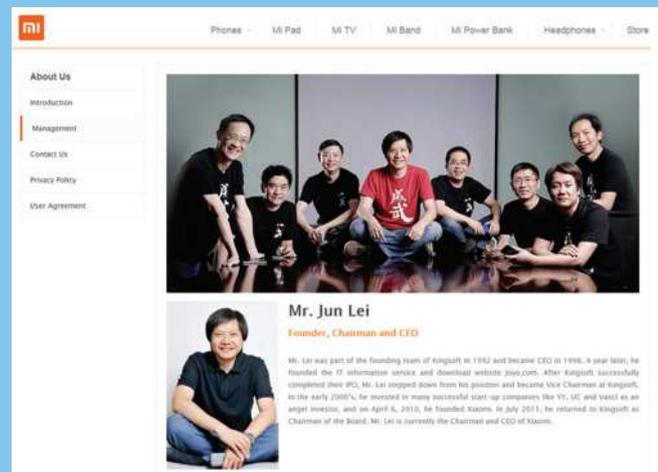
해외 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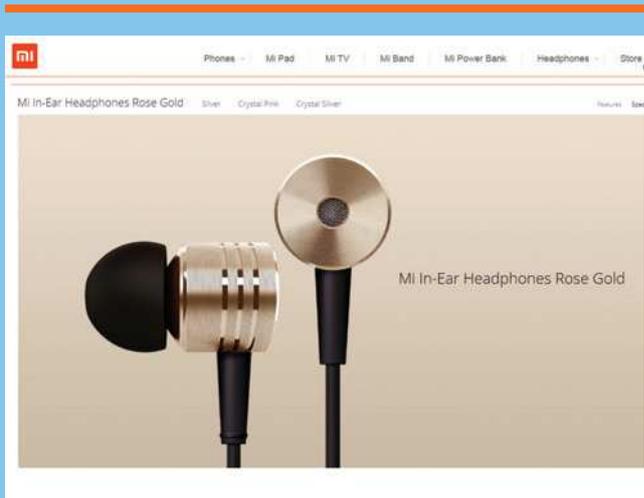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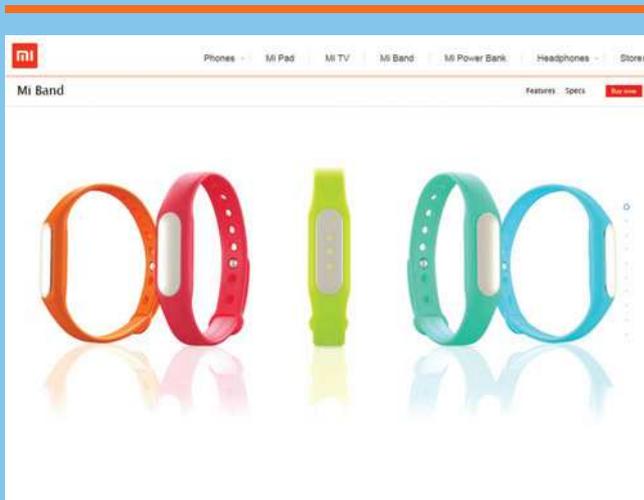


#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샤오미

‘애플 짝퉁’이라고 불렸던 중국 샤오미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업한 샤오미는 불과 4년 만에 중국에서 판매 1위의 스마트폰 기업으로 급성장했고, 창업 5년째인 현재는 세계 3위의 스마트폰 기업이 되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를 제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샤오미의 기업 가치를 작년 말 기준 460억 달러로 평가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중 으뜸으로 꼽기도 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보조배터리, 태블릿 PC, 텔레비전, 블루투스 스피커, 액션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진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상당한 국내 팬들을 보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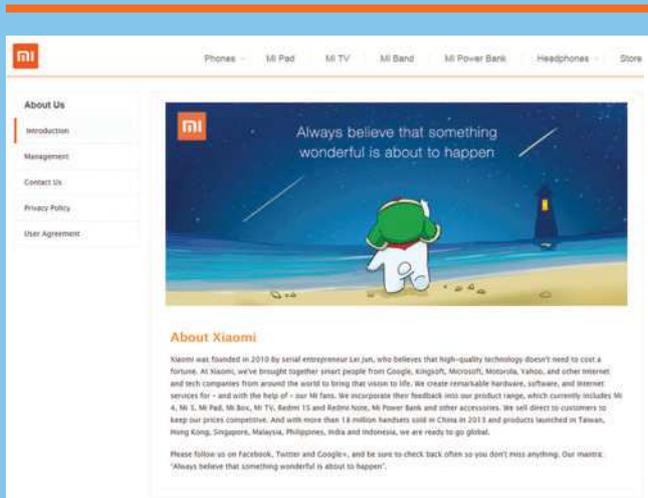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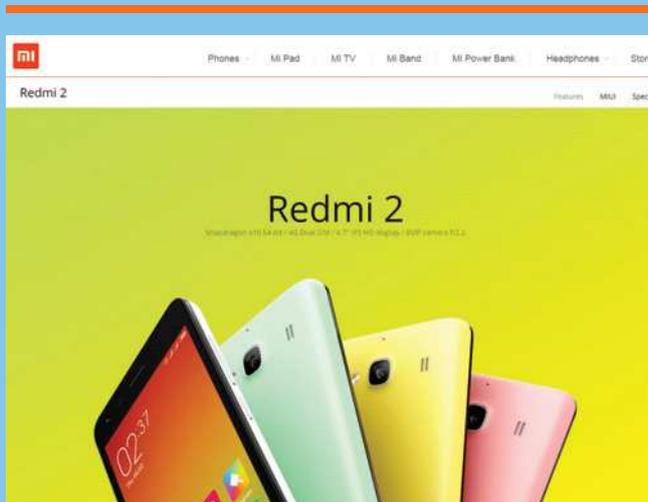
있다. 한 때 ‘애플 짝퉁’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다.

그렇다면, 샤오미가 창업 5년 사이에 이처럼 세계 3위의 스마트폰 기업으로 부상한 이유는 뭘까. 많은 매체들은 샤오미의 성공 비결에 대해 ‘창업 엔지니어의 힘’, ‘온라인 전략’,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등을 꼽는다.

#### 7명의 창업 엔지니어의 힘, 그들이 만든 조직문화

샤오미는 레이쥔 회장을 비롯해 린빈 사장, 리완치양 부사장, 홍펑 부사장, 저우광핑 부사장, 황장지 부사장, 류더 부사장 등 7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토로라 수석 엔지니어, 구글차이나 연구개발팀 출신으로, 모두 실리콘 밸리의 혁신 풍토를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샤오미를 발전시켰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

샤오미는 ‘최고경영자-팀 리더-팀원’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조직 체제를 갖고 있다. 승진을 해도 직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러 단계의 직급을 두지 않은 이유는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듯 단순한 조직 체제는 단계별로 상사에게 보고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또한 누구나 레이쥔 회장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로 직접 소통할 정도로 수평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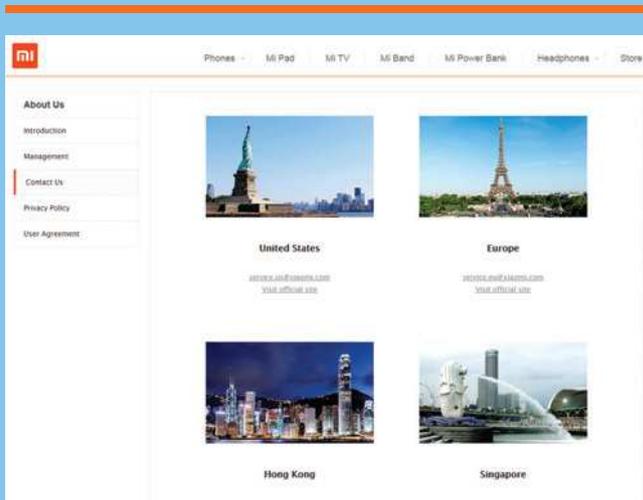
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샤오미는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나 복장 규정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엄격한 출퇴근이나 복장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계적인 규정에서 벗어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생각에서다. 샤오미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을 거쳐 채용되면 최대한 직원 개개인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 편(Fun) 통로, 친근한 샤오미

샤오미는 회사의 급성장과 더불어 전체 직원수가 8천여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 베이징 하이텐구에 신규 사무실을 임대했다. 로비에는 놀이터에서나 볼 수 있는 미끄럼틀이 놓여있는데, 일종의 ‘Fun(편) 통로’인 이 미끄럼틀은 2층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미삼아 계단 대신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안내 데스크를 비롯해 휴게실은 오두막처럼 꾸며졌으며, 로비 한 켠에는 직원들이 유기된 강아지들을 데려다 키우는 강아지집도 있다. 또한 1층 로비에서는 투명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소통과 개방의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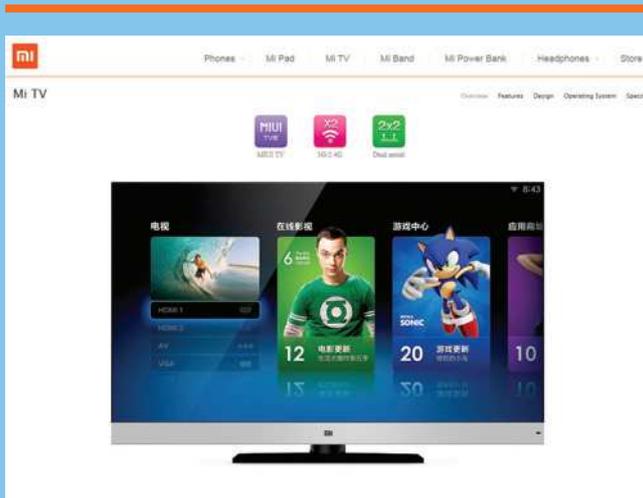
샤오미 본사에서 느껴지는 친근함은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샤오미는 인터넷으로만 판매되고 SNS로 홍보한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광고를 하지 않기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샤오미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1천2백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으며, ‘미팬(Mi Fan)’이라 불리는 팬클럽도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 측은 “‘미팬’은 자발적으로 모바일 플랫폼(MIUI)의 업데이트를 개발해준다. 현재 나와있는 23개 언어 버전의 MIUI 가운데 샤오미가 직접 개발한 것은 3개 뿐”이라며 “샤오미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미팬은 그 기계 안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회사와 함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팬’은 고객이 회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효과를 발휘하며 샤오미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 사람을 중심에 둔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



샤오미가 창업 멤버 7명의 힘으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고,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세계 3위의 스마트폰 기업이 된 것처럼, 원익 역시 사람을 중심에 둔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활발한 소통을 가능케 하며, 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자유, 소통, 행복’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원익의 미래가 기대된다.

## 원익

## 원익 이용한 회장, SEMI(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회장 취임

원익 이용한 회장이 'SEMI'(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용한 회장은 7월14일부터 16일 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Moscone Center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WEST(세미콘 웨스트)'에서 2015년 7월15일자로 'SEMI'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용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SEMI' 1,9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해 'SEMI'를 이끌어 가게 됐다.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로,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의 제조공급망을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협회다. 미국,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에 13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1,900여 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SEMI는 반도체, 태양광(PV), LED, 평면 디스플레이(FPD),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인쇄 및 유연전자, 마이크로 및 나노 관련 전자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40년 넘게 전 세계 비즈니스와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회가 대변하는 산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SEMI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전자 제조 지역에 글로벌 지사를 두고 각종 활동과 행사를 개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매년 'SEMICON KOREA'가 개최되고 있다.

원익 이용한 회장은 이번 'SEMI' 회장 취임에 대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SEMI) 회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소감과 함께 "한국은 물론,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새로운 시장 기회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원익은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을 이끌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큐엔씨, 원익머트리얼즈, 테라세미콘 등의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원익

## 비침습 고주파 지방파괴 뱅퀴시, '뉴 뱅퀴시' 로 새롭게 선보여

의료기기 전문기업원익은 RF 고주파심부열 에너지를 이용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바디쉐이핑 시술장비인 '뱅크시'를 새롭게 리뉴얼 한 '뉴 뱅퀴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뉴 뱅퀴시'는 새롭게 출시한 '플렉스 어플리케이터'와 함께 구성되며, 어플리케이터는 비만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열을 전달해주는 피부 비접촉 장치로서 뱅퀴시 시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플렉스 어플리케이터'는 복부와 옆구리를 한번에 시술할 수 있던 기존 어플리케이터보다 넓이가 좁아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도 빼기 힘든 허벅지, 엉덩이 밑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 여성들의 고민거리인 허벅지 살은 몸매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하다.

유럽피부과학회장을 역임한 프리츠 박사(Dr. K. Fritz)의 논문에 따르면 허벅지 부위에 플렉스 어플리케이터를 적용한 결과, 4회 시술 후 2주 뒤 허벅지 둘레가 평균 2.43c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및 옆구리 어플리케이터와 병행하면 바디라인 전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뱅크시는 미국특허받은 전 세계 유일한 비접촉식 RF 의료기기로서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몸매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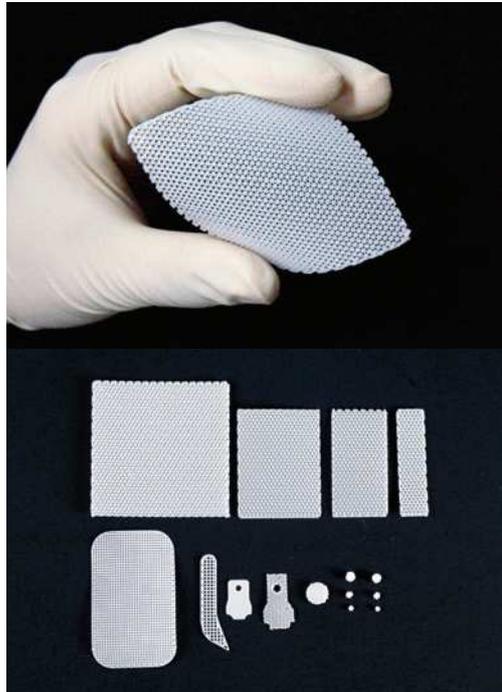
미국에서 혁신적인 3대 에스테틱 기기에 선정된 '뱅크시'는 피부접촉없이 선택적으로 지방층에만 RF 고주파 심부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나 근육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지방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해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뱅크시'는 뚜렷한 체중감량 보다는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감소시켜 신체의 윤곽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다.

원익 헬스케어사업본부장 이창진 전무는 "새롭게 출시된 뉴 뱅퀴시의 플렉스 어플리케이터는 하체비만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층에 효과적인 기기"라면서 "비접촉 방식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체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에 지속적인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체내이식형 생분해성 3D 바이오 프린팅 의료제재 출시



의료기기 전문기업원익은 체내이식형 생분해성 3D 프린팅 의료제재인 ‘T&R Mesh’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T&R Mesh’는 국가미래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기반의 생분해성 의료제재로서 인체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조직이 생성되도록 해준다. 작년 9월, 생분해성 3D 프린팅 의료제재로 안면재건 성형수술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T&R Mesh’는 2년 정도의 자연분해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의 생성을 돕는 고분자, 단일 생체 흡수성 재료인 Polycaprolactone (PCL)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티타늄 소재의 의료제재는 비용적인 부담이 높고, 인체에서의 제거가

필요할 경우 소재적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T&R Mesh’는 두개 악안면 부위의 조직결손 부위에 이식할 수 있는 ‘BFM Mesh’와 코 연골 조직 재생을 위한 ‘Nasal Mesh’ 두가지 종류이다.

‘BFM Mesh’는 안와골절로 인한 눈꺼풀 부종, 결막하 출혈, 안구함몰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골절 부위에 덧대어 사용할 수 있으며, 안와골의 재생 및 재건을 촉진시킨다. 가로 50mm, 세로 50mm, 두께 1.0mm 규격과 세로 사이즈는 같은데 두께만 1.2mm로 조금 더 두꺼운 타입의 두 가지 규격으로 출시되었다. 두개 안면골의 이식 부위에 세포 증식 및 분화를 촉진시키고, 골 재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sal Mesh’는 휘어진 코를 정상적으로 교정하는 비중격 연장수술이나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 등에 사용되며, 자가 연골 채취 후 결손된 비중격 연골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로 40mm, 세로 10mm, 두께 0.8mm와 가로 40mm, 세로 20mm, 두께 0.8mm인 중간형, 가로 40mm, 세로 30mm, 두께 0.8mm의 세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었다. 수술 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실리콘 등의 비흡수성 인공보형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원익 헬스케어사업본부장 이창진 전무는 “의료기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앞선 기술의 3D 바이오 프린팅 의료제재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해서 의료 제재 분야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원익은 2015년 6월 9일 원익빌딩 지하1층 PDR룸에서 매니저보드를 진행하였다. 매니저보드는 대표이사 직접 참여하여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원익의 소통활동이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열리는 소통광장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는 치킨, 맥주 등의 다과가 제공된다.

한편, 6월 26일에는 서울 국제전자센터관리단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미팅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현장미팅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편의와 효율을 위한 미팅으로 TOZ, 국제전자센터관리단과 협약을 맺고 회의실을 대여하여 진행된다.

원익은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주)원익큐엔씨

## 사내 OA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원익큐엔씨는 직원 OA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28일~30일 3일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내 엑셀교육을 시행하였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초/중급 2개 반, 고급 2개 반으로 나누었으며, 이에따라 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반별 수강 인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교재



및 실습용 노트북을 별도 배부하여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였다.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재미에 몇몇 직원들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에 사용했던 교재는 교육 후에도 필요할 때 꺼내보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에 비치해두었다.

이번 교육에는 현장직, 사무직을 통틀어 총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업무상 엑셀 교육이 필요했지만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원익큐엔씨는 이번 교육의 보완점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OA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설해나갈 예정이다.

## 원익나눔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지난 6월 14일, 원익나눔회(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형길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한 마늘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원익나눔회는 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원익큐엔씨의 사회봉사단으로, 농촌봉사활동은 나눔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직원들 모두 회사에서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밀짚모자를 쓴 농부가 되어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마늘을 뽑았다. 부모님을 따라온 직원들의 자녀들 또한 작은 힘을 보탤고,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참여한 퀴즈제조본부 박성용 기장은 “직원 대부분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랐다”며 “이러한 농촌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농촌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다른 직원들 또한 “몸은 힘들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모두가 입을 모았다. 이날 봉사활동을 진행한 농가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늘을 한가득 선물해주어 훈훈함을 더했다. 원익나눔회는 앞으로도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원익아이피에스

## 원익아이피에스 봄맞이 행사

지난 봄, 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봄맞이 행사가 줄줄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힐링 산행’. 벚꽃과 자연을 즐기러 충북 칠갑산으로 30여명 직원이 함께여행을 떠났다. 가파랐던 등산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미난 농담으로 서로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여행에 참여한 신입사원에게는 회사생활 적응에 어려움은 없는지 듣고 조언을 해주며 모처럼만에 모인 여행에서 오래간만에 직원들이 편안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테마여행’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100여명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으며, 회



사 옆 공터에 분양한 미니텃밭 30여개는 신청한날 모두 분양이 완료되는 높은 참여를 보였다. 4월부터 시작한 농사는 7월 현재 수박을 포함한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한다.

또,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이 가장 사랑하는 체육활동인 탁구!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봄맞이 사내 탁구대회는 원익IPS의 22개팀의 모든 팀이 참가했고, 번외 경기로 임원탁구대회까지 진행이 되어 재미가 배가 되었다. 경기가 진행된 3주동안 진위R&D캠퍼스의 8층은 출전팀을 향한 열렬한 응원과 박수소리가 넘쳤고 경기가 종료되는 결승전에는 이제 탁구대회가 종료된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탁구대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메르스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단된 갖가지 사내 행사들이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

## 제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최우수경영상 수상

코스닥협회가 주관한 ‘제 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에서 원익IPS에서 최우수경영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이번 행사는 2년마다 경영실적, 투명경영,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부문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서 최근 좋은 실적을 보이는 여러 원익 계열사를 대표하여 원익IPS가 수상하였다. IR(Investor Relations)을 담당하고 있는 구매팀 한샘 대리는 “1100여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회사 중에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담당자로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을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2년부터 작년까지 연이어 ‘한국거래소 히든챔피언’ 선정 된 것에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원익IPS의 가치를 드높이는 의미있고 값진 수상이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소통하는 원익머트리얼즈



지난 5월 원익머트리얼즈는 각 담당 조직 별로 조직력강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반복 되는 일상과 바쁜 업무를 벗어나 각 조직 별로 임원, 팀장, 팀원들과 함께 조직력강화 행사로 인해 무거운 펜대를 던지고 가스 제조시설을 벗어나 웃으며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순천만여행을 기획한 경영지원, 제천 청풍호 1박2일을 실시한 신규&개발조직, 체육대회를 실시한 품질조직 등 자유 형식으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좋은 날씨 좋은 풍경에서 소통하며 행복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조직력 강화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채 1기 신입사원들은 처음 맞는 조직행사 참여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제공하고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동참

원익머트리얼즈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스충전화재사고 등 가스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0일 암모니아 대량 유출사고 대비 훈련과 화재발생에 대비한 실질적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은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대형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원익머트리얼즈 뿐만 아니

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119 안전센터 등에서 약 260명의 인원과 소방차, 응급조치 장비 등 40여종이 대거 투입됐다. 이날 이건중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전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점검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가스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안전에 더욱 유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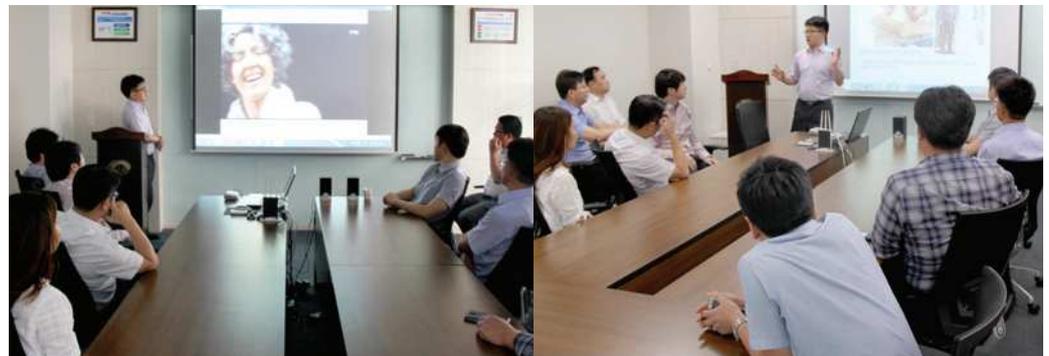
#### 신원종합개발㈜

### 주간 ‘공감 비디오’ 행사 실시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비디오’를 진행해 오고 있다.

TED, 세바시, 강연100°C등에서 영감을 얻어 20분 이내의 시간에 동영상과 해설을 곁들여 지식콘서트 형식으로 13회(2015년 7월23일 현재)를 진행해 오는 동안 공감, 배려, 성공한 실패, 설득, 버킷리스트, 인간관계, 직장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관련 강연, 영화, CF광고, 다큐 등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오고 있다.

회사의 여건상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집체교육이나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의 기업교육 이슈나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추천하는 동영상이나 주간 핫이슈가 될만한 소재들도 강연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감 비디오’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 욕구와 열정 바이러스를 자극하는 화수분이 되고자 한다.



## 신원종합개발 용인 마북 신원 아침도시 모델하우스 성황... 분양 돌입



용인 마북의 급부상할 주거지로 기대를 모으는 용인 마북 신원아침도시가 지난 17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내빈 및 분양관계자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된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에는 더운 날씨에도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용인 주민은 “용인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이야기에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직접 와서 보니 지금까지의 용인 아파트들과 차별화된 시설에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만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용인 마북 신원 아침도시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해 있는 중소형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12~18층 3개동, 180세대로 전용면적 63㎡, 69㎡, 7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은 젊은 주택 구매 가능 수요층인 30~40대 연령 비중이 높게 분포되었으며 기흥구는 수지구, 처인구에 비해 2배가량이 분포돼 있어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고객이 풍부하다. 실제 주변 대형 아파트들이 줄지어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데 반해 용인 죽전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물건 자체를 찾기 힘든 희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원아침도시의 경우 아파트 입구를 나와 바로 동백 죽전간 도로를 이용해 우로는 죽전, 분당권 생



활이 10분 안에 가능하고 좌로는 동백, 전면으로는 구 성 생활권이 모두 10분 안에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더욱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의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3번지 (오리역 3번출구)에 위치해있다.

(주)원익큐브

## 전사 단합행사(문경새재 도립공원 산책 & 체육대회)

지난 5월 15일 원익큐브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전 직원 대상 체육대회 겸 전사 단합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익큐브 관교사육 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IT지사부터 진천공장, 부산에 위치한 영남지사 직원까지 모처럼 모두 한 자리 모이는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오전 행사 1부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문경새재 도립공원 산책로 산행이었다. 문경새재는 국내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 될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 되고 있는 여행지로, 조선시대 영남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꼭 거쳐야 했던 옛길 1 관문에서 3 관문까지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가 잘 정비 되어 있어 맨발로 걷는 코스가 인기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평소 전화 또는 MAIL로만 알고 지내던 타 지역/부서 직원들과 함께 길 양 옆으로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며 걷고 있자니 출발전엔 길게 느껴졌던 산책코스도 어느새 금방이었다.

오후 행사 2부는 도립공원 주변에 위치한 체육공원에서 체육 대회가 진행되었다. 팀은 4개로 나누어졌으며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MC의 재치있는 진행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줄다리기, 큰 공 굴리기, 서바이벌 깃발잡기 등 전 직원이 직급, 연령 상관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되어 그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졌다.

우승/준우승팀 상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으로 밥솥,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직원들의 승부욕을 불태우며, 몰입도 또한 최고조였다.

이번 단합행사를 통해 원익큐브 임직원들은 다시금 소속감을 느끼고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음을 몸소 체험 할 수 있었다.



(주)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 주말농장 개설



테라세미콘은 지난 2015년 4월 27일 부터 안성공장 유휴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여 임직원들에게 분양하였다. 사내 주말농장 분양에는 임직원 개인과 부서 등 10개팀이 참여 하였으며, 부지조성 과정에서 모종심기와 텃밭 가꾸 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여 일체감 형성에 기여 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을 지원 함으로써 자연학습과 애사심 고취에도 일조하고 있다.

봉사 동호회 성심재활원 봉사활동



테라세미콘 봉사 동호회(디딤돌, 회장 김윤재 과장)는 지 난 2015년 5월 15일 성심재활원에서(경기도 오산시 소재)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내 봉사 동호회회원 9명이 참 여 하였으며, 성심재활원의 작은 운동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장애인 약60여명과 운동회를 함께 진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디딤돌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 사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2015 한마음 춘계산행 개최



테라세미콘은 지난 2015년 5월 29일 광고산(경기도 수원 시 소재)에서 2015 한마음 춘계산행을 개최 하였다. 임직 원 약160여명이 참석하여 그룹별 산행과 족구대회 순으 로 진행되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되었 다. 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해 정 기적으로 사내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 상반기 품질혁신 워크샵 개최

테라세미콘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롯데연수원에서(경기도 오산시 소재) 2015년 상반기 품질혁신 워크샵을 개최 하였다.

임원 및 그룹장 등 약40여명의 리더가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품질혁신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품질이

슈 토론을 통해 품질혁신 실천 및 내재화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테라세미콘은 품질혁신 실천을 위한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



## (주)씨엠에스랩

## 가족사진 전시회

씨엠에스랩이 지난 5월 '가정의 달' 을 맞아 가족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의 주제는 '누가 누가 더 닮았나?' 로, 씨엠에스랩 임직원들은 5월 한 달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며 서로 닮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전은 원익 빌딩 지하 식당에서 1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원익 빌딩에 있는 계열사 임직원 분들의 투표를 통해 1등을 선정했다.

1등 사진으로는 아빠를 꼭 빼 닮은 태아 사진이 선정되었고, 상품으로는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1회 촬영권이 수여됐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타계열사 직원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씨엠에스랩의 신제품 '바누아투 애쉬팩' 을 증정했다.

이처럼 씨엠에스랩은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서로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며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 셀퓨전씨 신제품 '톡스 필 프로그램' 출시



씨엠에스랩의 메디컬 뷰티 브랜드 셀퓨전씨가 '톡스 필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했다.

'톡스 필 프로그램'은 전문가용 필링 제품으로 단 한번의 시술만으로 속 탄력은 물론 환한 피부톤을 선사하여 다운에이징 효과를 주는 제품이다.

'톡스 필 프로그램'은 14년 간 러시아와 유럽에 수출된 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탄생되었으며, 씨엠에스랩에서는 피부과 전문

의 자문 위원단들과 함께 까다로운 자체 임상 테스트를 거쳐 톡스 필의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력 향상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국내 필 제품으로는 최초로 '볼륨 개선 임상 실험 테스트'를 완료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실제 3주간 성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80% 이상이 피부톤, 피부결, 탄력 개선 임상 결과에 매우 만족함을 보여 셀퓨전씨만의 뛰어난 제품력을 입증했다.

'톡스 필 프로그램'은 '3단계 다운에이징 시스템'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1단계 스케일링, 2단계 필링과 볼륨업, 3단계 중화화 피부 톤 개선의 순서로 이뤄져 있어 피부에 자극과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피부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톡스, 레이저, 필러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피부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밥퍼봉사활동 참여



지난 5월 27일, 씨엠에스랩 임직원들이 청량리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밥퍼’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로, 이날 씨엠에스랩 임직원들은 재료 손질부터 배식봉사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모두 참여했다.

씨엠에스랩 관계자는 “밥퍼 봉사단체의 슬로건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밥퍼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씨엠에스랩에서는 장기적인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주)원익엘엔디

## 메이플비치호텔 “Good Stay”로 지정



동해안의 넓고 푸른 바다와 대관령의 웅장함을 안고 Boutique Hotel을 지향하는 메이플비치 호텔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숙박시설에 부여하는 2015년 Good Stay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굿스테이 지정서, 지정현판, 현판매트, 객실 수건 등의 홍보 물품을 지원받는것은 물론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개발기금 용자지원 대상, 온라인 객실 판매 지원, 홍보 지원 활동 등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호텔 홍보 및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호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발한 소개 및 추천이 계속되고 있고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이라는 도서에도 메이플비치가 매우 인상적인 호텔로 3회나 소개 되는 등 온, 오프라인 상에서 메이플비치의 브랜드 파워가 상승 중이라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신원종합개발이 행복함이 충만한 조직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야말로 조직원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회사가 더 큰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며 “CEO의 역할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시켜,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달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행복함이 충만한 따스한 조직을 꿈꾼다

지난 2012년 신원종합개발에 기술/개발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입사, 2013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영일 대표이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급격히 위축된 회사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건설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회사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기본과 원칙에 바탕을 둔 변화를 주문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기본을 무시한 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순리를 따르며 격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에 건설업 특유의 투박하지만 역동적이고 인성이 바탕이 된 기업문화를 융합시켜 신원 특유의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원종합개발은 ▲프로젝트별 TFT 운영을 통한 협업 ▲‘Clean-day’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 ▲각종 업무 매뉴얼 및 프로세스 개선 ▲상시적 회의체를 통한 업무소통 등을 통해 업무혁신과 직원들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갔고, 이러한 변화는 청담동 도시형 생활주택, 경주 충효동 아파트, 전주 효자동 주상복합의 잇따른 분양 성공으로 이어져 직원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박영일 대표이사는 겸손과 공감, 배려가 ‘자유, 소통,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평소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겸손과 공감이 바탕이 된 소통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솔선수범 하고 있다.

“상대방이 ‘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야 진정한 소통이 되고, 상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겸손이 전제되어야 자신의 자유도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에게 겸손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리더가 독단적으로 바꾼다고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진정한 소통과 겸손을 바탕으로 핵심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원종합개발은 올 상반기 8차례에 걸쳐 팀장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조직문화 창달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도 계획중이다.

이외에도 박영일 대표이사는 직원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연주회나 오페라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투자와 스토리가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의 계기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박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년 전 구축된 사이버연수원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8시간의 온라인 학습과 4시간의 오프라인 강의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독서토론회를 팀장 및 팀원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공감비디오’를 매주 목요일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사/건축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지원금 제도를 운영,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교육과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길 생각이다. 또, 현재의 복지제도는 자녀학자금과 종합검진비 지원, 펜션 이용 등이 있지만, 회사의 경영실적이 더욱 향상되면 자기계발 뿐 아니라 직원 복지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 100% 분양 기대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7월17일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이번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에 대해 박영일 대표이사는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원종합개발이 직접 계획하고 진행했다”면서 “고객 요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최신 평면을 도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는 입지적으로는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분당선 오리역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남과 광화문까지 눈스톱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로 서울과의 거리를 좁혔고, 동백죽전대로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관순환도로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계절마다 화려한 색채로 갈아입는 법화산의 수려한 풍광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는 청정단지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의 100% 분양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1차의 성과에 따라 입지가 더 우수한 2차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도 금년 후반부 분양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내실과 역량을 고루 갖춘 기업을 만들겠다”

신원종합개발은 올해 용인마북 신원아침도시 1차 100% 분양 달성, 하반기 2차 분양을 목표로 추진함과 더불어 천안과 제천 등 지방에도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고 있어 연초



수주목표액 1,660억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안과 제천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경우 3,500억원 이상의 잔여공사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원종합개발은 올해 초 창사이래 처음으로 재건축 시장 진입에도 성공했다. 박영일 대표이사는 “올해의 목표 중 하나는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으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건축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건축 시장 진입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타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사업, 조합주택사업, 개발신탁 시공, 개발가능 토지 확보 후 시행 개발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 내실과 역량을 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신원종합개발의 2015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1 | 自由

26 **Wonik Business**  
(주)원익머트리얼즈  
S-Project



30 **Wonik Business**  
(주)원익큐엔씨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



34 **Wonik Business**  
(주)원익  
카이스트(KAIST) 인턴십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S-Project', Precursor to Success

원익머트리얼즈가 기존의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함께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성장기반을 다지며 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Precursor(반도체 전구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0월 전구체 기술을 가진 미국 노바캠을 인수한 원익머트리얼즈는 현재 프리커서 사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 “프리커서 사업, 우리가 책임진다”

프리커서 사업은 반도체 미세공정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반도체 전구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익머트리얼즈가 특수가스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프리커서 사업을 위해 지난해 프로젝트 팀 ‘S-project’가 꾸려졌다.

‘S-project’ 팀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사업을 위한 팀이기에 1년 혹은 1년 이내의 신입 및 경력사원이 과반수인데,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인 만큼 업무와 개별 능력에 있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S-project’ 팀을 이끌고 있는 김국재 부장은 “프리커서 사업은 새롭게 창의적으로 디딤돌부터 만들어가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은 프로젝트다. 그렇기에 우리 팀은 인력 구성 면에서 회사의 핵심인재로 구성된 프리커서 신규사업 개척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project’ 팀은 현재 프리커서 사업을 위한 신규부지(약 15,000평)를 확보하고, 평탄화 관련 부지정지 작업 완료, Layout 등 기초설계 및 사업 예산 승인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상세설계와 인허가, 발주, 건설, 시운전,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R&D 센터 설립 이전까지 프리커서 박막증착 연구를 위해 한양대와 산학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국재 부장은 “현재는 센터 건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 중인데, 공장 관련 엔지니어링 파트는 공장, 연구동 신설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들과 기본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 R&D 파트는 시장 추세에 맞춰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지 계획하고 개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로 소통하는 ‘S-project’ 팀

‘S-project’ 팀은 프로젝트 팀인 만큼 각 분야의 인재가 모였지만, 개개인의 성향과 개성이 뚜렷하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가 아니기에 자칫하면 팀웍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에 김국재 부장은 팀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장단점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팀 내에서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미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한 방향으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면서 “신뢰야말로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소통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수형 부장은 “사실상 한 개 회사의 조직들이 한 개 팀에 다 모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리딩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며 “그런 점에 있어서 김국제 부장님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엮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끌어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팀원들 모두 쉽게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입사한 정현중 신입사원 역시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회의 시 의견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며 “현재 한양대와 협력해 프리커서 박막증착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개인의 스킬도 올리고 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 담당”

S-project 팀은 현재 진행중인 신규부지에 프리커서 합성 및 증착 연구와 가스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동 (R&D센터) 구축, HCDS 합성-정제를 수행하는 공장동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는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이 끝나면 2017년 HCDS 매출 150억 원, 2020년 22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국재 부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HCDS 시장의 규모가 300억 원 정도인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진출할 계획”이라며 “또 해외 진출의 경우, 중국 시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매출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S-project’ 팀은 단기적으로는 신규부지 공장동-연구동 건립 완공, 장기적으로는 HCDS 이외에 DIPAS 등 지속적인 설비 구축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원익큐엔씨,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원익큐엔씨가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인 중소기업 공모사업의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원익큐엔씨는 정부로부터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 지배력, 중간규모 기업군, 집중적 연구개발, 글로벌화 지향성, 인재육성 친화도, 독자적 성장기반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대책에서는 그동안 중기청과 산업부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통합, 올해 30개 기업을 선정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원익큐엔씨를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30개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성장 전략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책을 지원기관 협력을 통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 R&D 지원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과 인력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향후 10년간 중기청과 산업부의 집중 지원 및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매출액 400억~1조원 이하,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3년간 R&D 투자비중 2% 이상, 5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 달러~1억 달러 1회 이상 경험,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5000달러 미만 5%, 이상은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대상이며, 올해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19개로 평균 매출액은 1,064억 원, 평균수출액은 5,900만 달러, 수출 비중 평균은 59.4%로 집계됐다.

특히 기술력과 수출 성과, 투자 전략, 경영 혁신 및 고용 전략 등 전반적인 기업의 역량 수준과 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원익큐엔씨가 최종 선정 30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Wonik Business

(주)원익큐엔씨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



책임감과 자신감을 확인한 계기

지난 7월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5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서 수여식'에는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원장,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윤동한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30개 기업에 대한 2015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단체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원익큐엔씨는 박근원 대표이사와 정우현 부사장, 인사팀

도현수 부장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감동과 혁신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심의를 거쳐 이 자리에 오신 30개 기업 관계자분들, 임직원 모두 축하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축사에서 “중기청과 산업부 두 기관이 올해 처음 지원 대상을 공동 선정한 만큼, 사

업 통합의 시너지를 확대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면서 “여러분들이 최근 침체된 지역 수출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2015년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의 종합평가위원장을 맡은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30개 기업의 공통된 특징으로 ▲잠재력이 높고, ▲수출비중이 60% 이상이며, ▲거래선이 다변화 되어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앞으로도 잘 유지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는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선정에 대해 “엄격하고 진지한 심사 과정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책임감과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그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원익큐엔씨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 미래사업 발굴, 우수인력들과 코웍(co-work)한다

원익이 변화와 혁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익은 올해 4월부터 IT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카이스트 학생들과 협업을 진행, 기존의 사업들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원익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이번 인턴십 협업은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허준, 이닝우, 양민영 세 명의 학생들과 함께한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마다 원익 본사를 방문해 한 주 동안 진행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원익 기획조정실 IT미래사업TF 한동일 부장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미래 잠재력이 높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Vertical SNS(관심사 기반의 SNS)로, 올해 사업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오전 관교 원익 본사에서 만난 이영우 학생은 “Vertical SNS 분야는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위주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1년 반 전부터 준비해왔다. 원래는 투자 목적으로 원익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일주일에 한 번 원익 본사에 방문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온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올해 말 런칭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물인터넷 IoT와 관련해 허준 학생은 “IoT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뿐 아니라 자동차나 노트북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라며 “아직 구체화 되었다기 보다, 미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뽑아내 테스트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IT 분야가 없는 원익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분야에 대해 가장 먼저 느끼고, 경험하는 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아이디어와 회사의 역량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동일 부장은 “IT미래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창업자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방법과 비즈니스를 성공하게끔 투자 및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함께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ICT 분야 중 Vertical SNS 사업은 현재 시장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왔고, IoT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자체를 컨셉화 해서 매력적인 상태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번 협업은 미래사업 발굴이라는 목적 외에도 우수 인재들의 원익 유입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원익이 카이스트에서 우수 인재 확보 시, 인턴 학생들이 관련 인재를 소개해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잠재력이 높은 ICT 분야 중 Vertical SNS와 IoT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원익의 이번 도전은 카이스트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원익이 반도체 관련 분야와 더불어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턴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반드시 성공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도전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원익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와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지 기대된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2 | 疏通

38 **Speacial Edition**  
원익 명사초청 특강  
공존의 법칙



42 **Speacial Edition**  
(주)원익머트리얼즈  
환경안전 · 기술 / 추광호 상무



48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BMW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봄날씨가 화창한 오후,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는 명사초청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약 200명의 임직원들로 가득했다. 입사한 지 100일된 신입사원들의 열기와 참여 덕분에 여느 때보다 활기찬 특강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초청된 명사는 최근 '김팀장은 왜 나한테만 까칠할까'라는 저서를 낸 의식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윤태익 교수(인하대학교 겸임 교수)로, 이날 윤태익 교수는 “나로부터 비롯된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 다름의 이해가 소통의 첫걸음

애니어그램코리아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한 윤태익 교수는 각자 타고난 성격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기다운 행복,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강연과 저서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도 기업, 특히 원익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던지며 특강을 시작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하고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렵나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하고 일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나요?”

“일이요.”

윤태익 교수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정작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하는 교육이 주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대한 것 보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복한 기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부는 다름 아닌 ‘사람 공부’임을 강조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각자 성격이 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20% 정도만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 타고난 또는 형성된 성격을 살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이 잘 되려면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빛깔이 되어 어우러질 수 있게 해야 해요. 빛깔이 다양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게 콜라보가 되겠죠. 그러려면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기업 발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의식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성격을 살려 자기답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 기업이 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윤태익 교수는 새와 토끼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새는 날아다니죠. 토끼는 쾅쾅쾅 뛰어다니고요. 만약 토끼에게 날아다니라고 하고, 새에게 쾅쾅쾅 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불행하겠죠. 새는 새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각자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알



표1  
머리형 · 가슴형 ·  
장형 특성

	머리형	가슴형	장형
말투 특징	따지는 스타일	부드러운 스타일	큰 목소리
평소 모습	무표정	사교적(대화 좋아함)	행동파
중요한 가치	아는 게 힘(사실)	사람이 재산(분위기)	현찰, 몸, 현장
태도	되면 한다	분위기 되면 한다	제대로 하자
성향	효율적	감성적	저돌적
휴식 방법	혼자 쉬는 것	대화 나누는 것	잘 먹고 몸 쓰는 것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업도 사원의 재능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윤탤횭 교수는 장형인 팀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팀원들에게 휴일에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은 머리형 또는 가슴형 팀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 9가지의 무게 중심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이날 윤탤횭 교수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 3가지로 사람을 구분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적용해볼 수 있도록 강연을 이끌어갔다. 윤탤횭 교수가 설명한 각각의 특성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1)

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머리형, 가슴형, 장형은 평소 모습에서 성향, 중요한 가치까지 모두 다





원들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설명했다. 그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형일까

윤태익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딱 하나의 형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형적 ~형', 예를 들

어 '머리형적 가슴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성향을 다 타고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장형적 장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더 맞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각 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원익인들이 직접 서로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짧은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성격을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망설임없이 설명하는 모습에서 동료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 머리-가슴-배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조직도 발전할 수 있어요.

강연을 마무리 하면서 윤태익 교수는 어느 조직이나 다름을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신입사원들을 비롯한 원익 임직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1, 2층 로비에서 서로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작업장 가스질식 사고, 안전작업절차 준수로 막는다.

그동안 산업가스 및 특수가스 업종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서발간과 교육을 통해 특히 독성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전작업절차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우리나라 가스안전에 대한 역사를 바꾼 사건이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하였다. 바로 모사의 불화 수소(HF, Hydrogen Flouride) 누출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공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

하였다. 정말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하고 만에 하나 발생이 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여 피해 범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독성가스가 아닌 우리가 향

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질소 등에 의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사고 한해 20여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상·하수도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 점검, 보수 등의 작업 중에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예기치 않은 사망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근로자와 슬퍼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산소가 없고, 유해가스가 가득한 맨홀 등의 밀폐공간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장소인지를 알고 조금의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 밀폐공간이란 맨홀, 탱크, 정화조, 침전조 등의 공간에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기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약 1%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밀폐공간에서는 기존의 산소농도가 떨어져 인체의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상기 근속년수별 질식재해 발생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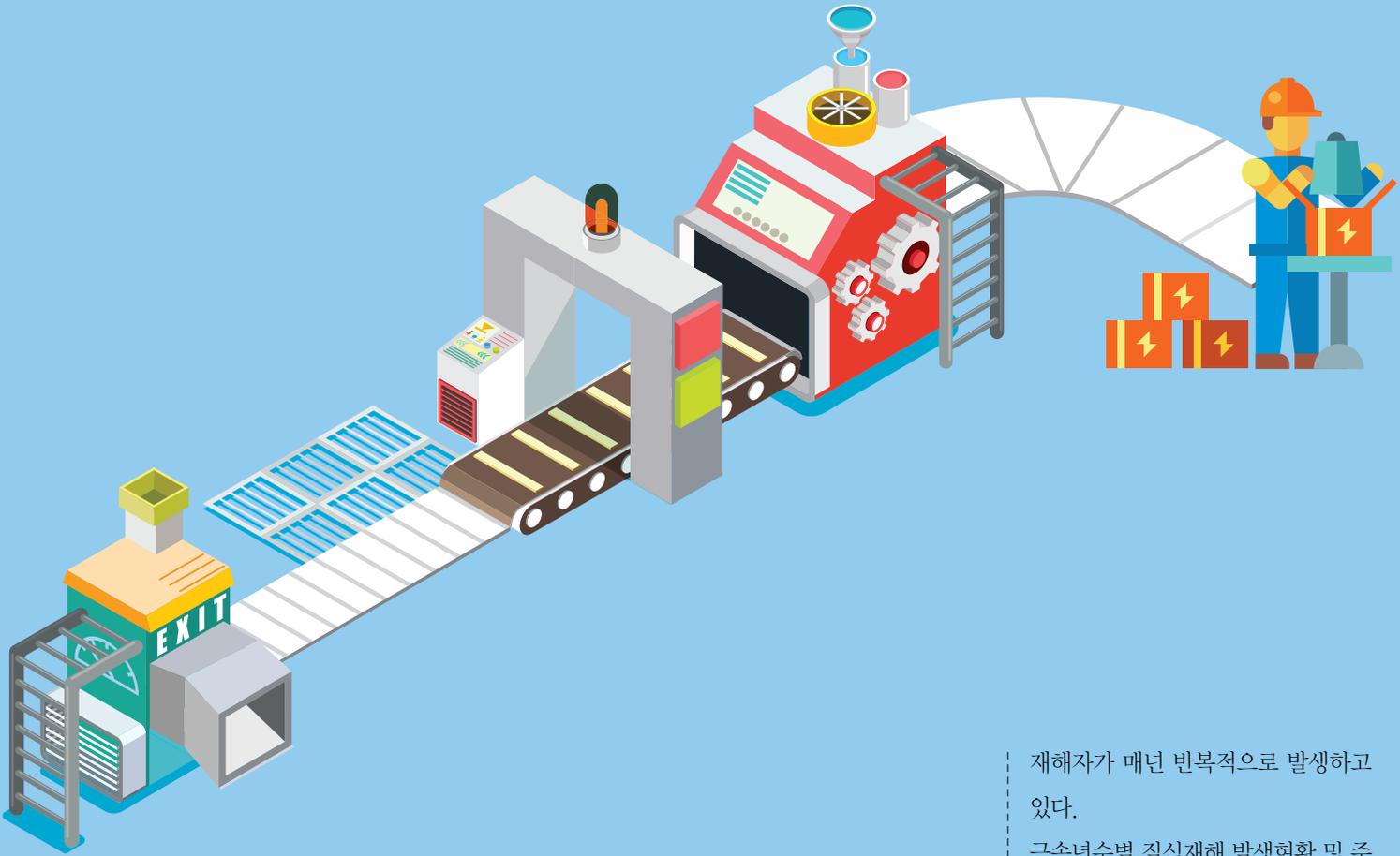
황을 보면 근속년수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질식재해 발생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일용직 또는 질식재해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미숙

런 근로자의 질식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44명 중 실제 밀폐공간내부에 작업을

###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구분	년도	계	2012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사망	인원	181	18	14	12	13	14	31	20	22	16	21
	건수	143	16	14	9	12	11	20	16	16	12	17
부상	인원	77	15	15	11	8	6	7	7	3	4	1



하다가 질식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3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재해자가 쓰러진 것

을 목격한 주변 동료작업자가 구조하러 따라 밀폐공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7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해 실제 작업과 관련 없이 구조하다가 발생하는

재해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속년수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및 주변 동료작업자의 질식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 인명을 보호하고자 밀폐공간 기본 안전작업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 근속년수별 질식재해 발생 현황



01

###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02

###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출입구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구비장비: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03

### 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이하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04

### 환기실시

- 작업 전, 작업 중 계속환기
- 적절한 환기방법
  - 시간당 전체 체적의 5배 이상 외부 공기로 환기
  - 급기(공기를 불어넣을시)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 배기(공기를 빼어냄)시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Scum)층 또는 퇴적물(오니, 슬러지 등)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에 주의하고 작업 중 계속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한다.

05

###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위에 설명한 안전작업절차를 우리산업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장탱크 또는 반응기작업의 질식재해 예방에 적용하면,



(1) 대상설비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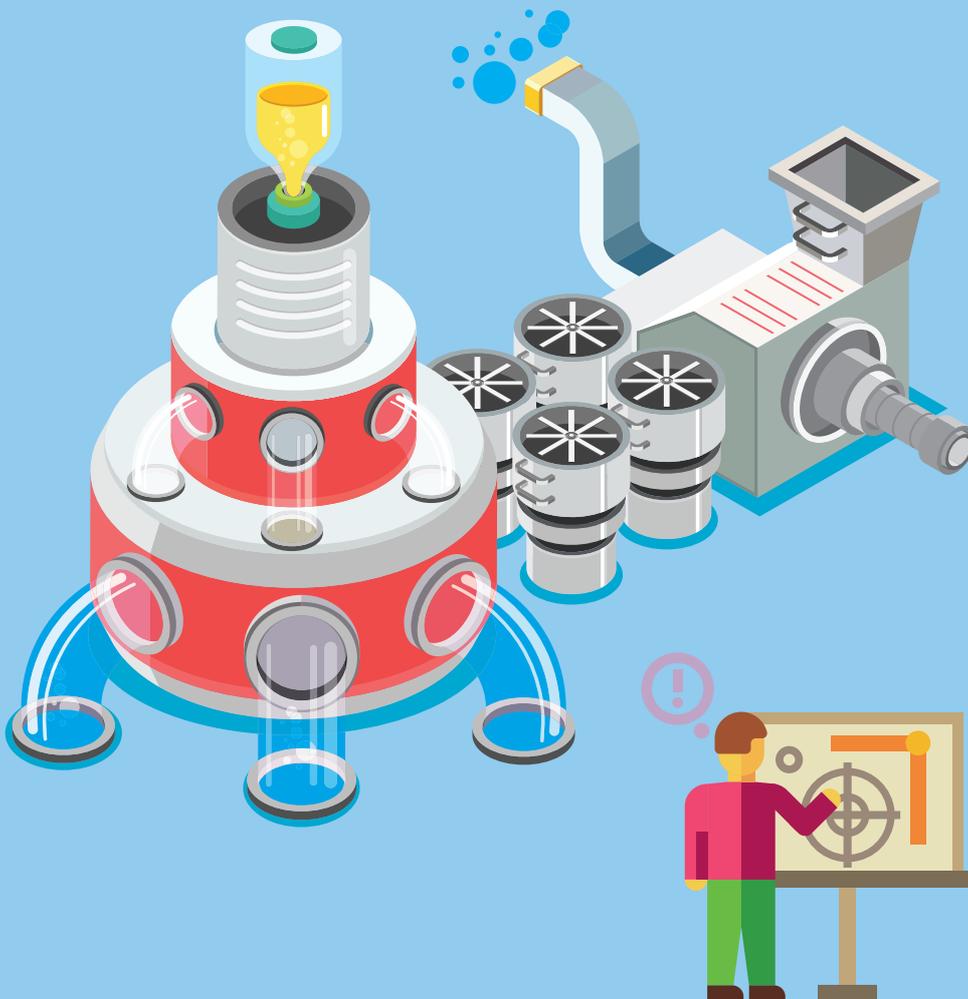
- 화학공장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반응기
- 원료 교반기
- 유류, 화학물질원료 등의 저장탱크
- 폐유기용제 등 폐액 저장탱크
- 곡물 등의 저장탱크(사일로)
- 간장, 주류, 효모 등 발효를 위한 원료저장탱크
- 급수용 물탱크(저수조), 보일러 보충수 탱크 등

(2) 주요 위험작업 종류

- 반응기 관련작업 : 반응기 하부 반응물 제거작업, 교반기 내부 세척 작업, 원료잔량확인, 기타 보수·점검 작업 등
- 저장탱크 관련작업 : 탱크 내부 이물질 제거(청소)작업, 원료의 잔량 및 부패확인 작업, 방수 및 방청작업, 기타 보수·점검 작업 등

(3) 질식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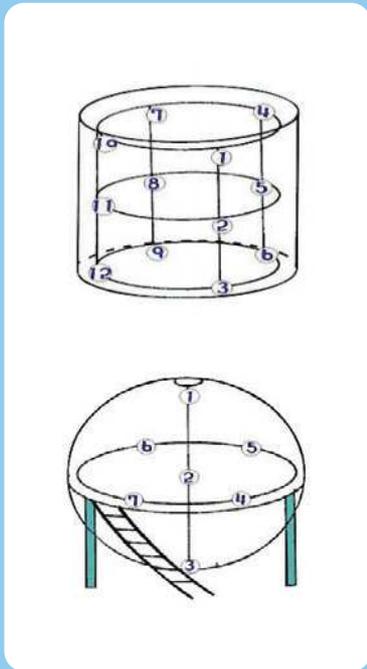
- 장기간 밀폐된 철재탱크 내벽의 산화작용에 의한 산소감소로 산소결핍
- 반응기 내부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의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 원료 저장탱크 내부에 들어있던 화학물질 원료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 저장탱크 내부의 원료, 폐찌꺼기 등의 부패작용으로 발생한 황화수소 등에 의한 중독 질식
- 점검·보수를 위한 탱크내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중독 질식
- 기타 미생물 호흡으로 인한 산소결핍
- 저장탱크 및 반응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식재해는 단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보다는 저장탱크 및 반응기에 들어있던 화학물질 및 찌꺼기 등에 의한 중독 질식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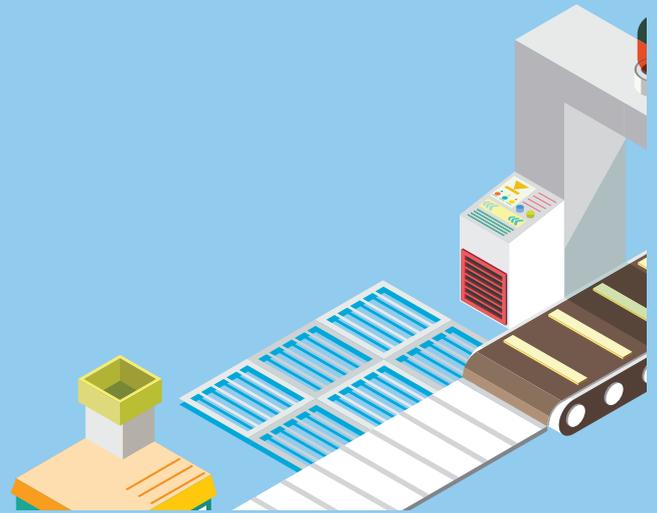
#### (4) 반응기 · 저장탱크작업의

##### 안전작업 절차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개시 전, 작업재개 전, 교대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및 저장 탱크 · 반응기 내부 존재가능한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판정기준은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 공기 농도(산소 18 ~ 23.5%, CO<sup>2</sup> 1.5%미만, H<sub>2</sub>S 10ppm미만, 기타 물질별 노출기준)와 비교하여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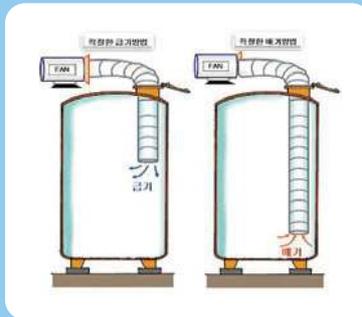


-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 작업 전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 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VOCs,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환기 실시한다.

※ 무득이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한다.



- 작업 중 방독마스크 착용
  - 작업 중에는 반응기, 저장탱크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 실시

※ 단, 방독마스크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실시된 상태에서 산소농도가 정상농도를 확인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위험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착용하여야 함

우리주변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실제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푹푹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에 대한 의지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 BMW가 세계 최고인 이유

BMW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생산기술, 숙련된 장인,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BMW는 근로자 중심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근로자들과 상생의 길을 걸으며 동반 성장해왔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탄력근무제'와 '교환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BMW 뉅골핑 공장은 245km<sup>2</sup> 규모로, 1만7500여 명의 직원과 800명의 수습사원이 하루 1천600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1973년 가동을 시작한 뉅골핑 공장은 현재 7시리즈를 비롯해 거의 모든 BMW 차종을 생산하며, 이곳에서 지난 42년간 만들어낸 BMW 차량은 900만대를 넘는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5000만원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에 따라 매년 연봉이 인상되지만, 이 곳은 기본급을 작업 숙련도에 따라 10여 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연봉





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BMW는 장인을 우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곳의 근로자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40~50대 비중이 높다.

### 탄력근로제와 교환근무제

BMW 공장의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근로시

간 관리 계획에 쌓인 시간이 35시간일 경우에는 일주일을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불황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미 적립해 놓은 시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관리 계획에 초과 근무에 대해 적립을 해 놓을 수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 통장처럼 연간 최대 200시간까지 미리 쓸 수도 있다.

BMW는 댕골핑 공장을 비롯해 뮌헨, 레겐스부르크, 란츠후트 등 4개 공장의 상황에 따라 상호 교환근무가 가능하다. 각 공장들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근로자를 파견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은 다른 나라의 BMW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회사와 서로 ‘윈윈(Win-Win)’ 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근로자 중심의 작업환경, 탄탄한 노사 관계

근로자 중심의 조립라인도 눈 여겨 볼 만 하다. 뉅골핑 공장은 근로자가 보다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차체의 높낮이와 각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조절된다. BMW는 근로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Kg 이상 부품을 들지 않도록 기계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트와 차체의 결합 등 힘이 들어가는 일은 로봇이 하고 있다. 상당수 공정을 로봇이 하고 있는데도 근로자 수가 도시 인구 수 1만8천여 명과 비슷한 1만 7500여 명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다.

또한 BMW는 탄탄한 노사관계를 자랑한다. BMW 그룹이 최대 경영위기에 몰렸던 지난 1959년, 당시 노조는 스스로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회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노사는 각자의 이익보

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며,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BMW 측은 “우리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함께 방향성을 논의한다. 위기가 있을 때에도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 노사관계는 지금의 BMW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

BMW의 대형 고급세단 ‘7시리즈’는 뉅골핑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만약,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도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BMW가 한 공장에서 ‘7시리즈’를 만드는 자신감은 서로 신뢰하며 배려하는 문화, 안정적이고 탄탄한 노사관계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 윤보라 · 사진자료출처 BMW홈페이지

**YOUR BENEFITS.**

**Working together with BMW Corporate Sales.**

At BMW Corporate Sales, we always offer our customers individualised solutions that reflect the situation in their specific country. A global network of sales organisations and dealerships creates a solution that is tailor-made for your company, in terms of the vehicle type, financing and fleet management. This may include a fleet comprising MINI, BMW and BMW i vehicles, as per customer requirements.

- ▣ The benefits of becoming a corporate customer
- ▣ Total cost of ownership
- ▣ Service & support
- ▣ BMW EfficientDynamics
- ▣ BMW ConnectedDrive

**The benefits of becoming a corporate customer.**

Top-quality vehicles with fuel-efficient, money-saving engines. Employees motivated by the prospect of dynamic driving and greater fuel efficiency in a company BMW or MINI. Cutting-edge technologies like BMW EfficientDynamics and BMW ConnectedDrive as well as MINIMALISM and MINI Connected, that help you drive more safely and economically. And a team of International Key Account Managers is on hand to provide expert, cross-border support in over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se are just...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3 | 幸福

52 **Zoom in**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StimPack)



5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 농촌일손돕기



60 **Wonik Dream Team**  
신원종합개발(주)  
사업관리팀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건전한 문화, 우리가 앞장선다

2012년 1월 결성된 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StimPack)은 지난 3년여 간 한 달에 2~4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직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원익큐브의 '자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스팀팩'의 경기는 나이와 직위를 막론하고 대표이사, 임원진, 신입사원 등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며 활발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 스팀팩 회원들은 "회사 내 자유롭게 건전한 문화는 우리가 앞장서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다.

### 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는 사이에 실력도 쑥쑥!

지난 7월9일 오후 6시30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성남시평생학습관 체육관에는 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회원들이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했다. 경기 때마다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운동하지만, 이날은 아쉽게도 바쁜 업무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스팀팩 회장을 맡고 있는 진중언 부장(지원팀)과 총무 이종찬 사원(화학사업부)를 포함 9명의 직원들이 함께했다.

올해 6월부터 스팀팩 회장을 맡고 있는 진중언 부장은 "스팀팩





은 매월 1-3주 또는 2-4주 성남시평생학습관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체육관 대관을 미리 예약한 뒤 이용하고 있는데, 예약 가능한 날이 많으면 한 달에 3~4번 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지난달에는 총 4번의 경기가 있었고, 특히 지난 주에는 원익과 경기를 하는 등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계열사와도 친목을 다지며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인 스팀팩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다같이 모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첫 번째 경기는 ‘몸풀기 경기’. A팀과 B팀으로 나눠 전반전과 후반전을 진행했

데, A팀의 압승이었다.

A팀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펼쳐나갔으며, 전반전을 10:1로 마무리했다. 후반전에서도 A팀이 우세한 실력을 보였고, 결국 첫 경기는 20:7로 A팀이 승리했지만, 회원들은 경기 내내 팀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할 수 있어!”, “좋아, 잘했어” 등을 외치며 격려했다.

원익큐브 화학2팀 최철규 대리는 “스팀팩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진종언 부장님, 박찬중 대리, 서혁준 대리가 모두 A팀에 속해있어 점수차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특히 이날은 스팀팩의 신입회원 세 명이 참여했는데, 최철규 대리 역시 올해 6월 경력직으로 입사해 스팀팩 활동을 시작한 신입회원 중 한 명이다.

첫 경기의 아쉬움을 전한 그는 “사실 평소에 농구를 워낙 좋아해 내 실력도 과시할 겸 스팀팩에 가입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기존 회원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준 대리(화학1팀)도 올해 6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뒤 곧바로 스팀팩에 가입한 신입회원으로, 그는 스팀팩 활동이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동준 대리는 “원익큐브에 입사한 이후 스팀팩에 곧바로 가입한 것이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다른 사업부는 물론 타 계열사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이 스팀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월 입사한 화학1팀 이종찬 사원은 “운동 후 함께 술을 마시기 보다 다같이 회사로 돌아가 지하 헬스장에서 샤워한 뒤 귀가한다. 업무가 끝난 뒤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 어느 팀이 이길까? 메인 경기는 박빙의 승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스팀팩은 이날의 메인 경기에 돌입했다. 첫 경기에서 워낙 양 팀이 실력차가 있었던 터라 메인 경기는 스팀팩의 에이스들을 분산시켜 팀을 다시 꾸렸다. A팀은 박찬중 대리를 비롯해 서혁준, 최철규 대리 등이 포함됐고, B팀은 스팀팩 진중언 회장과 총무 이종찬 사원 등으로 구성, 일명 ‘대리팀’과 ‘비대리팀’의 경기로 진행됐다.

메인 경기는 전반전이 시작되자 진중언 회장이 연달아 6점을 넣으며 B팀이 우세하는 듯 했으나, A팀도 차근차근 점수를 냈고, 결국 마지막 1점을 두고 양팀이 접전을 펼친 끝에 A팀 박찬중 대리가 1점을 더해 10:9로 마무리 지었다. 후반전 역시 양팀은 각각 1점씩 주고 받으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결국 A팀이 20:17로 승리를 거뒀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오늘의 경기에 대해 서로의 실력을 칭찬하고, 또 부족한 점이나 슛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중언 회장이 직접 1:1로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갖기도. 이에 대해 진중언 회장은 “현재도 스팀팩은 단순히 회원들끼리의 경기 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타 계열사 동호회, 대학 동아리 등과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향후에는 직장인 대회에도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꼭 농구 경기 뿐만 아니라 여성회원들이 함께하는 날에는 배드민턴 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농구 경기를 떠나서 원익큐브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 건전한 문화를 꾸준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스팀팩’ (StimPack: 스타 크래프트 게임 용어 중 ‘전투용 약물’을 뜻하는 말)이 명칭 그대로 ‘마약 같은 힘’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동관



## 원익나눔회, 의성 마늘밭에서 '구슬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가 올해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단체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 이에 원익나눔회는 경북 의성의 마늘밭을 찾아 마늘 수확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6월14일 오전 8시30분 원익큐엔씨 나눔회 회원과 가족 20여 명이 경북 의성군 가음면 소재의 마늘밭을 찾았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원익큐엔씨 퀴즈제조본부 생산2팀 조성호 기장이 큰 딸의 친구 할머니 댁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추천한 곳으로, 이날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는 나눔회 이형길 기장을 비롯해 퀴즈제조본부 생산1팀 조태영 기장, 김준열 기장, 생산2팀 박성용 기장, 최길중 기좌, 황현준 기사, 정중욱 기사, 인사팀 도현수 부장과 가족들이 함께했다.

우리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늘이다. 그 중 의성 마늘은 우리나라 토종마늘로, 향이 좋고 맵고 달콤한



함께 구슬땀 흘리며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농촌의  
살아있는 교육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확한 마늘도 풍성  
서로의 마음도 풍성



맛을 내며,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해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의성 마늘밭은 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 흙 냄새마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

마늘밭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한 단씩 묶어 화물차에 정리된 마늘을 싣고, 다시 마늘을 내려 건조대에 정리해서 넣어두는

일까지가 이날의 작업. 나눔회 회원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작업해야 하는 일인 만큼 저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팔토시 등을 준비하고,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마늘 수확에 나섰다. 첫 번째 밭 마늘 수확을 마친 후에는 국수와 시원한 막걸리 등 새참을 먹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밭으로 이동해 다시 마늘을 뽑고 한 단씩 묶어 정리하는 일을 진행했다.

“군대도 다녀왔고,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는 황현준 기사(생산2팀)는 “생각보다 크고 웅장한 마늘밭, 무더운 날씨에 땀은 계속 흐르고 정말 너

이 많은 작업을 우리가 없었다면 어르신들이 다 하셔야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무 힘들었다”면서도 “이 많은 작업을 우리가 없었다면 어르신들이 다 하셔야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해 본 농사일, 힘든 만큼 맛있게 먹은 새참, 그동안 잊고 살았던 흙 냄새 모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마늘 수확이 끝나자 회원들은 화물차에 한 단씩 정리된 마늘을 싣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다시 내려서 마늘 건조대에 정리해 널어둔 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점심식사로 준비된 삼계탕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날 봉사활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몸은 힘들지만, 훈훈한 정을 나눈 뜻 깊은 하루’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부인, 두 딸과 함께 참여한 박성용 가장(생산2팀)은 “첫 째 아이는 한창 사춘기라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내와 두 딸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흙 위에 앉아 일을 해보니 아스팔트 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섭리를 새삼 배우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처음 해 본 농사일,  
힘든 만큼 맛있게 먹은 새참,  
그동안 잊고 살았던 흙 냄새  
모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



염소야  
많이먹고  
빨리  
자라렴



또, 가족과 함께한 인사팀 도현수 부장 역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일하는 즐거움과 농촌의 살아있는 교육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되고, 오늘 함께한 직원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원익나눔회 이형길 회장은 “의성군은 우리나라 마늘 최대 생산지인데, 마늘 수확 시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해마다 마늘 수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더욱 깊었을 텐데, 짧은 시간

이지만 훈훈한 정을 나누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이렇게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나눔회는 이날 실시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6~7회 정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 사랑의 집 짓기, 장애인 봉사활동, 김장나누기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 윤보라



## 편안하고 솔직한 소통이 우리의 힘!

용인 마북동, 오리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마북 신원아침도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신원종합개발 사업관리팀 팀원들을 만났다. 신원종합개발 사업관리팀은 신원아침도시의 계약, 수금, 입주에서 고객 관리까지 책임지는 부서로서 경영의 최전선에서 신원종합개발에 현금을 유통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딱딱하고 남성적인 건설회사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팀장님과 솔직담백한 팀원들이 만들어내는 화기애애함에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업관리팀은 신원아침도시의 광고 컨셉의 기획은 물론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직접 고객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와 이후 고객 관리에 이르는 영역까지 담당하는 팀이다. 이 만만치 않은 업무들을 4명의 팀원들이 모두 소화하고 있다. 고신석 팀장, 임정수 과장, 최윤서 대리, 노주희 사원으로 이뤄진 사업관리팀은 신원종합개발 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이기도 하

다. 여심을 공략하는 광고 컨셉을 잡고 수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등 여성 직원들의 역할도 작지 않다. 서로 눈치 보는 것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업무와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도 느껴졌지만, 팀원들도 솔직함과 편안함을 사업관리팀의 자랑으로 꼽았다. “자칭 잘생긴” 고신석 팀장의 유머에 시종일관 웃는 분위기의 인터뷰 와중에서도, 마북 신원아침도시 모델

하우스 오픈 하루 전이어서인지 전력질주 후 평가를 기다리는 4명의 팀원들의 눈빛에서 긴장감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 직원들도 원하는 아파트예요!

“이번 모델하우스 평면이 정말 잘 나왔어요. 혁신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평형대에서 조망권이 좋은 설계가 나오기 쉽지 않는데, 거실과 모든 침실이 조망권이 좋은 건 물론 수납, 통풍성도 좋고 교통망도 좋아요. 게다가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어서 저도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자신있어요.”

최운서 대리는 마북 신원아침도시는 어떤 직원 혜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롯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용인에 평당 1천만 원을 안 넘기면서 이 정도로 상품의 질이 좋은 아파트는 보기 힘들다.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상품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임정수 과장도 말을 보탰다. 확신에 찬 팀원들의 말투에는 단순 홍보를 넘어서 자신들이 기획한 상품에

대한 애정과 그 간의 노력들이 느껴졌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해야 좋은 것이고 성과도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해요.” 고신석 팀장은 성과는 주변의 상황이나 운보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번 마북 신원아침도시 모델하우스 역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집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

사업관리팀 팀원들의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그만큼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기 집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다 되었을 거 같다는 질문에, 임정수 과장은 웃으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기서는 전문가이고 이것 저것 잘 따져보지만 정작 내 일은 잘 못한다”고 답했다. 고신석 팀장도 “직업병이라고 네이버 인터넷 페이지를 볼





때도 항상 부동산, 아파트 관련된 것들 위주로 보게 되고 지나가다가 빈 땅이라도 보면 여기에 아파트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멋쩍게 웃었다. 최윤서 대리 역시 “주부이다 보니 맘스 카페나 블로그에서 주부들의 생각이 어떨지 파악하고, 모델하우스를 보면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본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집은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집이 곧 가



족이고 행복의 근원을 만드는 곳이니깐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될 수 있으면 좋죠.”

고신석 팀장의 집에 대한 철학과 팀원들의 일에 대한 애정이 고객들에게 좀 더 경쟁력있고 알찬 아파트를 제공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남다른 팀, 남다른 집!

임정수 과장은 “개발사업은 원칙 보다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



에, 언제나 서로의 경험에 대한 소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바쁘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쌓아두지 않고 그때 그때 의견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신석 팀장은 최대한 업무 지시를 재미있게 하려고 또 다른 의견도 수용하려고 노력하며, 최윤서 대리는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



을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비전을 묻자, 노주희 사원은 “신입 사원이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응을 하고 있다며 수금 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잘해내서 팀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최윤서 대리는 “누구든 살고 싶은

집, 잘 지은 집”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정수 과장은 다른 의견도 수용하면서 서로 발전할 길을 모색하는 이 팀 분위기가 맘에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 “이 팀은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신석 팀장은 “이곳은 다른 건설회사와 다르게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좋고, 그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회사다. 우선은 열심히 준비한 마북 신원아침도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글 권은영 · 사진 조인기





6 LIFE STORY  
 4 Musical  
 뮤지컬 '인 더 하이츠'(In The H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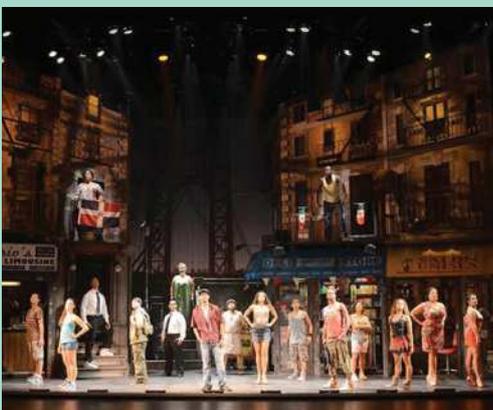
뮤지컬 '인 더 하이츠'(In The Height)가 오는 9월 한국에서 라이선스 초연 무대에 오른다. 뉴욕의 라틴할렘이라 불리는 워싱턴 하이츠를 배경으로, 그 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긴 삶과 꿈을 긍정적인 유머로 승화시키며 진한 위로와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뮤지컬 '인 더 하이츠'는 랩, 힙합 등 기존 뮤지컬 장르에서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흥겹고 에너지틱한 스트릿 댄스로 감각적이고 새로운 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21세기형 뮤지컬로 평가 받아온 작품이다.



2008년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오픈한 '인 더 하이츠'는 그 해 62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작곡-작사상, 안무상, 오케스트라상 등 4개 부문 수상, 2009년 그래미상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또한 본 공연의 극작, 작곡, 작사 그리고 주연을 맡은 팔방미인 아티스트 '뮌 마뉴엘 미란다'는 '인 더 하이츠'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국내 라이선스 초연은 에스엠컬처엔터테인먼트

(SM C&C)에서 제작,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흥행파워를 자랑하는 이지나 연출과 원미술 음악감독을 비롯해 박동우 무대디자이너, 구윤영 조명디자이너, 권도경 음향디자이너의 참여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랩과 스트릿 댄스가 무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 더 하이츠'에는 국내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무가 채현원, 김재덕이 안무감독으로, 랩 트레이너에는 레이블 '프레스레코드'의 수석 프로듀서이자 다수 아이돌 가수의 랩 트레이너로 활약 중인 프로듀서 나무가 힘을 보탠다. 또한 최고의 엔터테이너 배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화려한 춤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 차세대 뮤지컬 스타-실력파 아이돌 스타 총출동

하이츠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것을 꿈꾸는 희망의 청년 '우스나비' 역에는 배우 겸 힙합 가수 양동근이 캐스팅, 8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다. 또 뮤지컬 '스트릿 라이프'에서 화려한 댄스 실력과 랩을 선보인 바 있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 '보니 앤 클라이드', '조로', '체스'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아이돌그룹 사이니의 키,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랩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피니트 랩퍼 장동우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장을 내민다.

# 랩, 힙합, 스트리트댄스!

## 새로운 뮤지컬이 한국에 온다!



이어 하이츠의 자랑이라 할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니나' 역에는 청아한 음색과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춘 배우 김보경과 최근 MBC '복면가왕'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한 에프엑스 루나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니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콜택시 회사에서 일하며 니나와 사랑에 빠지는 '베니' 역에는 다양한 뮤지컬을 통해 스타성을 인정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서경수와 뮤지컬 '광화문연가', '뱀파이어'에 이어 세 번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매력적인 음색의 인피니트 메인 보컬 김성규, '대세돌' 엑소의 첸이 캐스팅 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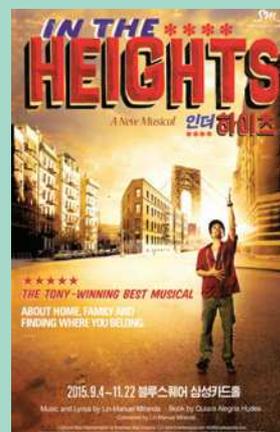
또한 하이츠 밖의 세상을 동경하며 모든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미용사 '바네사' 역은 '디셈버', '레베카' 등에서 열연하며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여배우 오소연과 가수와 뮤지컬 배우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제이민이 맡았다.

이외에도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어린 우스나비를 직접 키운 하이츠의 터줏대감 '클라우디아 할머니' 역에는 류수화, 우스나비의 유일한 혈육 '소니' 역에는 육현욱과 전역산, 콜택시 회사의 주인이자 니나의 아버지 '케빈' 역에는 베테랑 배우 박호산과 심정완이 출연하는 등 실력과 뮤지컬 배우들이 뮤지컬 '인 더 하이츠' 초연 무대에 함께한다.

한편 뮤지컬 '인 더 하이츠'의 한국 라이선스 초연은 오는 9월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 한남동 소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진행된다.

### 뮤지컬 '인 더 하이츠' (In The Heights)

공연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공연기간 : 2015년 9월4일 ~ 11월22일  
관람료 : VIP석 130,000원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주최·주관 : (주)에스엠컬처앤컨텐츠  
제작 : (주)이승진 프리덕션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6  
6

LIFE STORY  
Exhibition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풍만한 형태,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콜롬비아 출신의 살아있는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의 대표 작품들이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왔다. 7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페르난도 보테로전'에서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회화 총 90점이 소개된다.

'페르난도 보테로전'은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첫 전시에서 20만 명이라는 관람객 수를 기록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2015년 현대백화점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보다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작품들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특유의 유머감과 화려한 색채, 남미의 정서를 살린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 보테로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세계적인 거장이 되기까지의 노력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1932~)

콜롬비아의 화가, 조각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는 풍만한 양감을 통해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특유의 유머감과 남미의 정서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거장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뚱뚱한 모나리자는 그의 대표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9년 서울 전시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던 페르난도 보테로는 도쿄와 워싱턴, 스톡홀름에 이어 최근 본인의 고향인 메데인의 '더 서커스' 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전시로 소개되고 있다.

보테로는 구상화가지만 사실주의 화가는 아니다. 그의 그림은 리얼리티에 부합하게끔 설계되지만 그것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보테로 그 만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보테로의 조형성과 색채를 아우르는 각각의 주제로 선정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기법은 조금씩 변화되었으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의 주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패러디 테마의 경우 고전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형태와 색감으로 표현되는 정물과 라틴의 일상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이번 전시는 '살아있는 거장'이라 극찬 받으며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그의 작품을 통해 라틴 미술의 매력과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더한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 풍만한 형태, 새로운 해석으로

## 감성을 자극하는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 뚱뚱한 사람을 그리는 이유?

보테로는 뚱뚱함과 양감이 강조된 화풍으로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왜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나는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매우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보테로의 대답이 주는 혼란은 인물 모두가 ‘살이 찼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림 속 모든 요소에서도 비롯된다. 그는 살찐 남자나 뚱뚱한 여자같이 특정한 무엇을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리얼리티를 미술로 변환하는 수단의 하나로 변형과 변신을 이용하는 데 큰 관심을 쏟을 뿐이다.



### 라틴 미술을 알린 세계적인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라틴미술은 특유의 조형성과 색채를 선보이면서 발전해왔고 많은 작가들을 탄생하게 했다. 이전은 유럽과 미국에서 라틴 미술이 알려진 바 없었기 때문에 이후 많은 미술전시가 개최된 후 라틴 작가들이 소개되었고, 보테로 역시 60년대 이후 크게 주목 받기 시작하며 꾸준한 활동으로 풍만한 인체를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1960-70년대 주목 받기 시작한 이후 그린 작품에서부터 유럽과 뉴욕을 거쳐 라틴 예술의 거장으로 불리우기까지 최근의 작품을 담고 있다. 비정상적인 형태감과 화려한 색채로 인해 기법은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반면 인간의 천태만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면밀함도 엿보인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문제점과 라틴의 전통, 문화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 페르난도 보테로 (Fernando Botero)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1-2 전시실)  
전시기간 : 2015년 7월10일 ~ 2015년 10월4일  
전시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입장마감 오후 7시)  
문의 : 02-580-1300  
티켓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습관, 손씻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숙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외출 후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이다. 손 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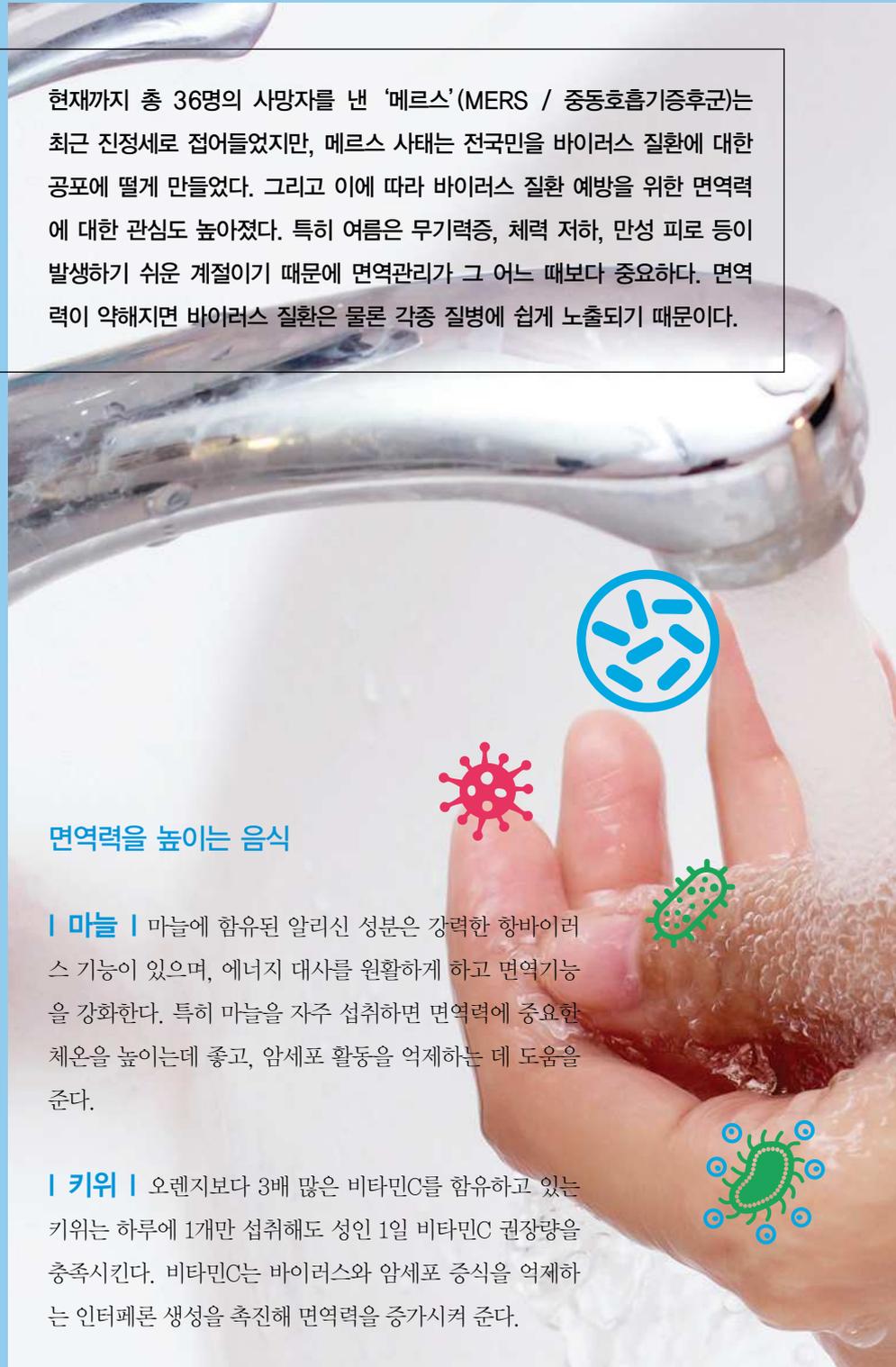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 심폐 기능 강화는 물론, 면역과 관련된 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충분한 숙면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총 36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는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메르스 사태는 전국민을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바이러스 질환 예방을 위한 면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여름은 무기력증, 체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면역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 마늘 |**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으며,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마늘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에 중요한 체온을 높이는 데 좋고,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키위 |** 오렌지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키위는 하루에 1개만 섭취해도 성인 1일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시킨다. 비타민C는 바이러스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해 면역력을 증가시켜 준다.



# 각종 질병으로부터

## 내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

**| 유산균 |** 유산균은 체내에 진입하려고 하는 면역시스템을 자극해 활성화 시키고, 각종 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막아 장을 튼튼하게 한다.

**| 고구마 |** 우리 몸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마주하는 부분은 피부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비타민A 섭취가 중요한데, 비타민A는 고구마와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 보충할 수 있다.

**| 소고기 |** 소고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미네랄 성분인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아연은 백혈구 생산과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소고기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 홍차·녹차 |**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에 홍차를 5잔씩 마신 사람은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신 사람보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10배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력을 높이는 아미노산인 L-테아닌은 홍차와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 토마토 |** 식이섬유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소화를 도와주고 피부 미용이나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굽는 등 익혀먹는 것이 좋고, 설탕을 찍어먹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 버섯 |** 버섯은 백혈구 생산을 증진시키고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주어 바이러스 감염에 강렬하게 대응하는 힘을 길러준다.

**| 등푸른생선 |** 참치나 꽂치, 고등어 등의 등푸른생선은 셀레늄, 엽산, 오메가-3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혈관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참조] 美 건강전문지 프리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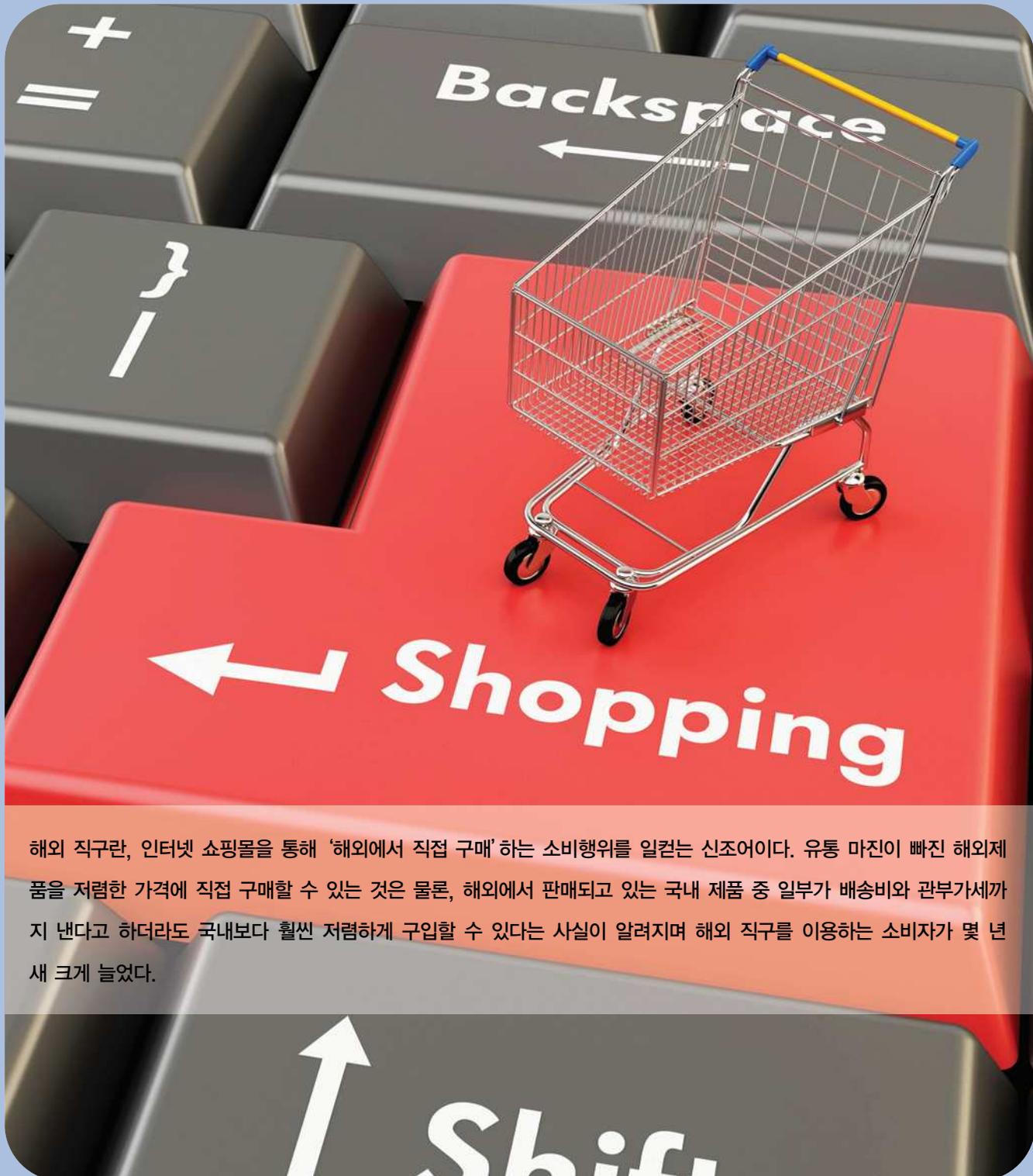
ECONOMY

7  
0

LIFE STORY

Economy

해외 직구



해외 직구란,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하는 소비행위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유통 마진이 빠진 해외제 품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 제품 중 일부가 배송비와 관부가세까 지 낸다고 하더라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 해외 직구,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소비하자

일명 '해외 직구족'들은 국내에서 값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마치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듯 다양한 상품들을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다.

해외 직구족들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 가격 경쟁에 나섰고, 여기에 최근에는 경기 불황과 환율 상승으로 해외 직구 증가세가 주춤 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해외 직구를 경험해 본 소비자들은 꾸준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외 직구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 결제 |** 해외 직구의 기본은 원화로 결제하지 않는 것. 원화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환전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 직구를 위해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Visa나 Master, 아멕스, JCB 등의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중 Visa와 Master 카드는 가맹점이 많아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구매 내역이 남아 비교적 안전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관세 |** 해외 직구시 관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다. 관부가세는 15만원이면 면제, 이를 초과하면 18~23%를 더 내야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금액에는 배송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품이 세관을 통관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으므로, 가격을 딱 맞추기보다 여유있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ECONOMY

7 LIFE STORY  
2 Economy  
해외 직구



**| 합산과세 |** 각각 15만원 정도의 제품을 다른 날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우연찮게 같은 날 동시에 한국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제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관부가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 교환 · 환불 · A/S |** 우리나라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원할 경우에 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직구한 상품의 경우에는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구입해야 한다.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해외 직구한 상품에 대해 블로그나 SNS를 통해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구입하기 전 리뷰를 검색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상품이 국내 판매 제품과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A/S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 배송대행 |**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될 경우에 대비해 배송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배송대행 업체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송대행 업체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믿을 만한 곳을 선택하고, 개인 자격으로 온라인 사이트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5년 여름호 원익사 통권 43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 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주)원익 고건호  
이기복

---

---

(주)원익아이피에스 정성운  
권기용  
차유리

---

---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이민희

---

---

(주)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신희숙

---

---

(주) 테라세미콘 최낙준  
김재광  
방주현

---

---

(주) 원익큐브 진종언  
윤세련

---

---

(주) 씨엠에스랩 오삼열  
박지현

---

---

(주) 위닉스 안희태

---

---

원익엘앤디 (주) 김기현  
윤성욱

---

---

신원종합개발 (주) 현승훈  
한영석

---

---

신원레저 (주) 남명은

---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윤용인

---

---

기획조정실 김동철  
서재원

---

죽전역/  
오리역 10분대

전타입 20평형대  
인기소형 아파트

전세대 남향 위주  
단지배치

지상에 차있는  
단지조성

4Bay(일부세대 제외)  
구조설계

드디어,  
분당·죽전을 모두 가진 새로운 생활이  
신원아침도시에서 펼쳐집니다!

가깝다! 죽전생활권  
반갑다! 신원아침도시



\*건축개요 • 대지면적: 8,396,800㎡ • 건축면적: 1,782,388㎡ • 연면적: 24,514,730㎡ • 건물규모: 130세대(지하 2층~지상 12/18층)  
\*본 홍보물의 건축개요 내용은 인허가 및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조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CGV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개발계획은 예정사업이며, 관계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전역 및 오리역 차량 소요시간 출처는 네이버 지도를 참조하였습니다.



용인 마북 신원아침도시

총 180세대 63㎡A,B(구26형)/69㎡(구29형)/72㎡(구29형) 사행·시공 신원종합개발(주)

마이

1599-1150